

원자력과 언론

—대만 방사성폐기물 사건을 중심으로—

이 상 돈

중앙대학교 법학과 교수

오

늘날 원자력계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마음이 가벼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한전의 한 고위직 인사는 도대체 잘못된 것 없이 죄인이 되어버린 기분이라고 씩씩하게 말한다. 어떤 이는 지방에 출장 갔다가 원자력연구소에 근무한다고 하니까 시골 아낙네가 “멀쩡히 생겼네”하고 신기하게 쳐다보더라는 기막힌 경험을 허탈하게 이야기한다.

돌이켜 보면 지난 10년간 우리 나라에서 원자력만큼 서러움을 받은 분야도 없을 것이다.

영광 무너야 사건, 울진·영덕 사태, 안면도 사태, 굴업도 사태, 영광 온배수 문제, 영광 5·6호기 건축허가 취소 사건 등 원자력을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사건이 계속 발생했다.

동해에서의 러시아 해군 방사성 폐기물 투기, 대만의 방사성 폐기물 북한 반출 시도, 일본의 재처리 관련 시설 사고, 독일의 방사성 폐기물 운반 사건 등으로 이어지는 국제적 사건도 그러했다.

우리 언론의 원자력 관련 보도

우리 나라 언론에서도 원자력 관련 사건은 항상 큰 지면을 차지했다.

최근 몇 년간의 원자력계의 홍보 때문인지 원자력의 필요성이나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언론인들 간에도 상당히 인식이 되어 있다.

실제로 필자가 만난 기자들은 영광 무너야 사건 보도는 잘못된 것이고, 동해의 러시아 해군 방사성 폐기물 투기 사건도 그린피스의 홍보 전략에 휘말린 면이 많았음을 인정한다.

그러나 기자들이 이렇게 사후에 인식을 달리한다해서 이미 일반 대중의 머리 깊숙이 각인되어버린 이미지는 웬만해서 지워지지 않는다.

이렇게 일반 대중에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원자력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는 이른바 ‘팔리는’ 기사일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 작은 사건도 심각한 사고로 포장되어 보도되고, 또 그래야만 읽히고, 따라서 원자력에 대한 대중의 선입견은 더 나빠지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다.

사실 우리 언론도 굴업도 지정 후에는 이제는 처분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였는지 정부의 방침에 상당히 우호적이었다. 주요 신문의 사설도 정부의 결정을 지지하고 나섰다.

그러나 굴업도 사업도 덕적도와 인천의 주민 및 반핵 단체의 격렬한 반대에 봉착했고 나중에 활성 단층이 발견돼서 포기하고 말았다.

굴업도 계획이 백지화된 후에도 영광 지역이 이런 저런 이유로 반대의 표적이 되었으나, 5·6호기 건축허가 취소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중앙언론이 영광군에 대해 비판의 폭격을 퍼부었다. 실로 영광 5·6호기를 되살린 최대의 수훈은 중앙 언론에 있다.

그러나 이같은 원전 이해 분위기는 대만 방사성 폐기물 사건으로 물거품이 되어 버린 듯하다.

대만의 방사성 폐기물

대만이 방사성 폐기물을 북한으로 반출하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다. 이러한 대만의 계획에 대해 정부

와 언론. 그리고 민간 단체가 반대하는 것은 당연하고 또 반대해야 한다.

그러나 이 반대가 대만의 방사성 폐기물 반출을 저지하는 것을 넘어서 국내의 반핵 운동에 또다시 불을 붙이려는 의도를 포함하고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대만의 방사성 폐기물 반출 시도는 우리의 원전 사업에 기여하는 바도 있다고 보는 분도 있다.

대만의 원전 기(基)수가 우리보다 적으면서도 폐기물 배출량은 우리보다 훨씬 많으니 우리의 원전 기술이 입증된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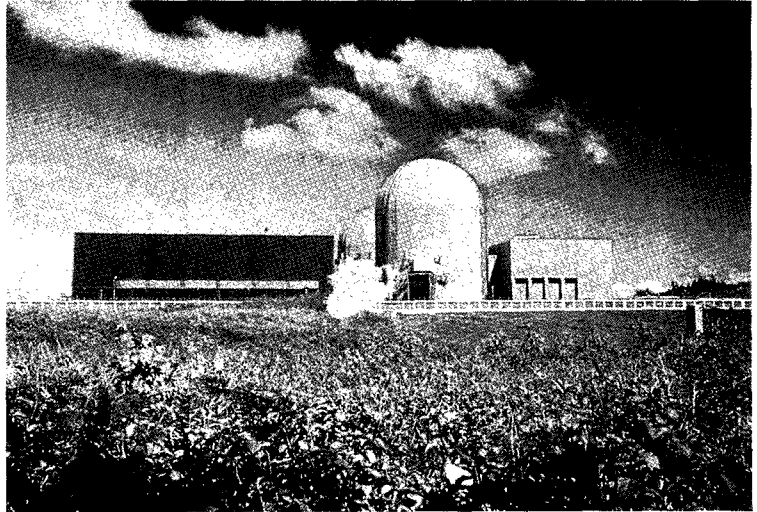
그러나 이는 언론의 속성과 대중의 기억력을 잘 모르는 과학기술자의 소박한 기대에 불과하다.

원전 1기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양을 비교해서 읽은 사람은 아마도 원전 분야 종사자와 반핵 단체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니 읽을 필요가 없는 사람들만 읽은 셈이다.

그러면 일반 대중의 기억에 깊이 각인된 대만 방사성 폐기물 사건은 무엇인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대만의 음모와 싸우는 한국의 반핵 운동 단체, 위험하게 방치된 대만의 방사성 폐기물, 대만 방사성 폐기물 저장소 란위도에서 태어난 기형아와 저능아 등이 대중이 오래 기억하는 이미지일 것이다.

이 모든 것은 한국의 원자력계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원자력에 대해서는 작은 사건도 심각한 사고로 포장되어 보도된다. 이른바 '팔리는 기사'이기 때문이다. 사진은 대만의 만산 원자력발전소

우리가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입지를 선정하려 할 때 대중은 우리의 처분장을 란위도의 이미지에 투영해서 생각할 것이다.

또 일반 대중은 대만에서 애국적 투쟁을 벌인 우리의 반핵 운동 단체에 대해 우호적인 이미지를 그대로 갖고 있을 것이고, 반대로 처분장 건설을 추진하는 우리 정부와 한전을 대만 정부와 대만전력으로 동일시할 것이다.

따라서 대만 방사성 폐기물 사건은 우리의 원전 사업에 이미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사실과 관점

대만의 방사성 폐기물 사건에는 정책과 사실이 섞여 있다. 대만 정부의

결정은 정책이고 이를 비판하는 것은 관점의 문제이다.

그러나 대만의 처분장이 있는 란위도가 방사능에 오염되어서 기형아와 저능아가 많다는 보도는 사실 보도이다. 언론은 관점에 있어서는 자유롭다. 그러나 언론에 있어 사실은 생명이나 다름없다.

또한 사실 보도에 착오가 있으면 잘못된 관점이 나올 수 있다. 따라서 란위도의 기형아와 저능아는 이번 사건의 아킬레스 건(臍)이다. 그런데 이것이 잘못됐다.

대만 방사성 폐기물을 저장하는 처분장이 있는 란위도는 문명과 등웅진 원주민만이 살고 있다. 이런 곳에 폐기물 처분장을 건설하는 것은 이른바 환경 윤리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그러나 윤리와 과학은 일단 구분돼야

한다.

과연 란위도는 방사능으로 오염된 '죽음의 섬'인가?

한국의 언론은 대부분 그렇게 맥을 잡아서 현지 취재 기사를 크게 내보냈다.

한국 신문의 기사는 대개 비슷했다. 인구 3,000명의 란위도의 한 초등학교 1학년 학생 10명 중 2명이 저능아이고, 기형아가 50여명이나 되며, 저능아가 너무 많아서 저능아 특수 학급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몇 가지 의문이 남는다. 과연 한국 기자들은 란위도에 가서 기형아와 저능아를 보았는가?

대만 정부가 도대체 방사성 폐기물을 그렇게 허술하게 관리할 수 있었을까?

도대체 우리 기자들은 무슨 재주로 타이페이에 도착한 그날로 이런 기사를 서울로 송고할 수 있었나?

약간의 상식을 가진 사람은 이런 의문을 갖게 될 것이지만 일반 대중은 신문 보도를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한 궁금증은 우연한 기회에 풀렸다. 중앙 일간지의 한 기자가 대만 취재기를 진솔하게 풀어썼기 때문이다. 이를 여기에 소개하기로 한다.

현장 확인과 보도

이 기사는 1월 22일 대만 출장 명령을 받았다. 기자가 타이페이에 도

착해서 본사에 연락해 보니 난리가 나 있었다. △△신문의 가판에 이미 란위도 르포 기사가 났기 때문이다. 물론 '죽음의 섬'이란 기사였다.

언론은 특종에 살고 낙종에 죽는 법이니 난리가 날 만도 하다. ○○일보의 밤새 기사를 만들어서 △△신문과 똑같은 기사를 시네판에 내보냈다.

데스크에서 싫은 말을 듣고 난 기자는 늦었지만 란위도로 향했다. 란위도는 너무 낙후되어 공중 전화로 국제통화를 할 수 없어서 민가에 사정을 하여 기사를 불러 주어야만 했다.

단 하룻동안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소장을 만나 인터뷰를 하는 등 바빴던 일정을 보낸 기자의 최대의 관심사는 기형아와 저능아였다.

여기서 그 기자의 글을 그대로 옮기기로 한다.

"취재를 하면서 뇌리를 떠나지 않았던 화두는 '정확한 보도'였다. 핵 폐기물은 위험하다. 그러나 환경운동가가 주장하는 란위섬의 기형아는 정말 찾을 수 없었다. 환경운동가들은 기형아가 50여명이나 있다고 했는데 섬에서 나고 자란 50~60대 원주민 10여명을 만났지만 소문조차 들은 적이 없다는 것이다. 란위섬 주민은 3천명에 불과해 나이 지긋한 원주민은 모르는 이웃이 거의 없다. 하지만 한국 언론들은 제로부터가 '죽음의 섬'이었다. 마구잡이로 한쪽으로 몰아 쓰는 기사는 이제 피해야 한다는 생

각을 했다."

이 정도 되면 사실은 거의 분명해질 것이다.

우리 옛말에 사람 세 명이 모이면 호랑이를 만든다고 했다.

기형아 50명은 아마 대만의 반핵 단체가 어림잡아 만든 말일 것이다.

그러면 저능아 특수반은 무엇인가?

원주민은 근친 결혼과 비위생적 생활 환경, 영양 상태 불량으로 저능아가 많다.

그래서 대만 정부가 학생들을 효율적으로 가르치기 위해 저능아 특수반을 둔 것이다.

대만 사람들은 한국 정부가 이같은 언론 보도를 조장했다고 보고 분노했고 그래서 대만과 한국간의 관계는 갈수록 악화되어 가고 있을 뿐이다.

대만 방사성 폐기물 사건을 보고 느낀 또 한 가지 점은, 우리 나라의 외교·통일 당국자들이 원자력 산업과 반핵 운동에 대해 무지하고 순진하다는 점이다.

통일원 차관이 TV에 나와서 반핵 운동 단체가 대만을 지지해야 한다고 부탁을 하는 정도가 되어 버렸다.

물론 그는 그의 말 한마디가 부메랑이 되어서 우리 정부의 원자력 정책을 덮치는 것을 몰랐을 것이다.

모르고 한 일을 탓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잘 모르는 사람들이 움직이는 나라에 사는 것은 참으로 답답한 일이다. ☹